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2. 6

Manna of Choonghyun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열왕기하 · 역대상 · 요한계시록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그리스도인의 부흥

● Contents

8 매일성경묵상 열왕기하 22장 ~ 열왕기하 23장

12 1과 다시 부흥시켜 주소세!

20 매일성경묵상 열왕기하 24장 ~ 열왕기하 25장

역대상 1장 ~ 역대상 4장

28 2과 하나님의 손

36 매일성경묵상 역대상 5장 ~ 역대상 10장

44 3과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다

52 매일성경묵상 요한계시록 11장 ~ 요한계시록 16장

60 4과 문 밖에 계신 예수님

68 매일성경묵상 요한계시록 17장 ~ 요한계시록 22장

『중현의 만나』는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를 돕기 위해 중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6 June 2012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	4 열왕기하 24장 ←	5 열왕기하 25장 제2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	6 역대상 1장 →
10	11 역대상 5장	12 역대상 6장	13 역대상 7장
17	18 요한계시록 11장	19 요한계시록 12장	20 요한계시록 13장
24 제3차 학습세례식	25 요한계시록 17장	26 요한계시록 18장	27 요한계시록 19장

July

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열왕기하 22장	2 열왕기하 23장
7 역대상 2장	8 역대상 3장	9 역대상 4장
14 역대상 8장	15 역대상 9장	16 역대상 10장
21 요한계시록 14장	22 요한계시록 15장 제2차 청지기훈련	23 요한계시록 16장
28 요한계시록 20장	29 요한계시록 21장	30 요한계시록 22장

교회 주요일정

6월 4일~6일

제2차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

6월 22일

제2차 청지기훈련

6월 24일

제3차 학습세례식

나의 주요일정

- ① 2012년 제2차 청지기훈련(6월 22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③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후임 당회장이 청빙되도록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소서.
- ④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⑤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⑥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⑦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⑧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참석한 교회들이 십자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⑨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⑩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⑪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의 부흥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해도 마음이 전혀 뜨거워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가 걸으신 좁고 험한 길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생명이 있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손을 잡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 때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부흥입니다.

내가 갈망하는 부흥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로 부흥하십시오.
그 안에는 구원과 영생의 은총이 있습니다.

2012년 6월을 맞이하여 위임묵사 김성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HOLY

옷을 찢으니라

열왕기하 22장
산송가 200장

묵상노트

요시아는 열왕기 전체를 통해 다윗 왕에 버금가는 선왕이었습니다(2절). 그는 율법책이 발견되기도 전에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성전을 보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으며 율법에 경고된 저주가 유다에 임할 것임을 깨닫고 통회하였습니다(8~14절). 유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지를 여선지자 홀다에게 묻습니다. 홀다는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며 요시아는 그 재앙을 면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15~20절).

역대하 34:3을 보면 요시아는 왕위에 오른 지 8년, 즉 16세가 되어서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고 20세가 되어서는 많은 우상과 우상의 단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26세가 되어서는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이것만 본다면 요시아 왕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고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읽었을 때 요시아는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었다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요시아가 옷을 찢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크신 여호와와의 진노를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가 죄인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볼 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게으름을 벗어 버리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둘째 구역(14절)** : 예루살렘은 두 구역으로 나뉘었다. 첫째 구역은 구름 지대로서 좀 더 오래된 곳이었고, 둘째 구역은 낮은 지역으로서 나중에 개발된 곳이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왕하 22:11)

When the king heard the words of the Book of the Law, he tore his robes. (2kgs. 22:11)

기도제목

① 영적인 게으름을 벗어 버리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를 허락하소서. ② 십자가 묵회 컨퍼런스 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노트

유월절을 지키라

2

토요일

열왕기하 23장
찬송가 420장

묵상노트

요시아의 개혁 중심에는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 주며 언약을 체결합니다(1~3절).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먼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의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혼합종교를 철저하고 단호하게 제거했습니다(4~7절). 지방의 산당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개혁하고, 브닷세와 과거 유다의 왕들이 섬겼던 우상과 제단을 허물고, 심지어 솔로몬 왕이 세운 산당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8~14절).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유다의 경계를 넘어 이스라엘의 베엘까지 확장되었습니다(15~20절). 그러나 요시아 왕의 개혁도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했고, 그 자신도 므깃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21~30절).

요시아 왕은 율법책을 발견한 후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언약을 좇아 살도록 강조합니다. “왕이 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21절)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좇는 것은 곧 유월절을 지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35:1을 보면 요시아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신앙의 참된 회복은 단지 우상을 철폐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좇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신자가 참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단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좇아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왕이 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왕하 23:21)

The king gave this order to all the people: "Celebrate the Passover to the LORD your God, as it is written in this Book of the Covenant." (2kgs. 23:21)

• 도해10절 :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 위한 제단이 있었던 힌놈 골짜기의 한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기도제목

① 모든 우상을 버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을 좇아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뒤편 컨퍼런스에 온 성도들은 기도록, 앞장선 일꾼들은 십자가를 붙들며 섬기게 하소서.



“

주 께 서
십자가 를
지 셴 습 니 다

”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저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써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셨습니다.

나는 누구를 돌보아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감히 무엇을 머할 수 있겠습니까?

로렌스 하우스먼(시인, 1865~1959)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3 주일

4 월요일

☐ 열왕기하 24장

5 화요일

☐ 열왕기하 25장

6 수요일

☐ 역대상 1장

7 목요일

☐ 역대상 2장

8 금요일

☐ 역대상 3장

9 토요일

☐ 역대상 4장

1

다시 부흥시켜 주소서!

Revive Us Again!

| 초점 |

그리스도인은 부흥해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본문 | 시편 85:1~7

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 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②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③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④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다

⑥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다

⑦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고통이 임합니다. 이 때는 위험한 시기이므로 부흥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진지한 마음으로 모일 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부흥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며 이는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흥은 지역교회 내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경험할 수도 있지만,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영혼을 얻는 교회가 부흥할 때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 시편 85편을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십시오.

1~3절 _____

4~7절 _____

8~13절 _____

우리 교회를 위한 오늘의 메시지는 1~7절에 초점이 있습니다. 부흥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기도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위대한 행적들을 기억함으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 85:1~3

부흥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의 무릎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부흥을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기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 역대하 7:14, 마가복음 9:29, 사도행전 4:24,28~31 말씀이 강조하는 것을 한 단어로 써 보십시오.

※ 기도를 통하여 체험한 부흥의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 모일 때에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기대하라

부흥을 기대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부흥을 기대하면서 당시의 문제들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시 85:4~5

대부분의 신자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부흥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세상을 뒤엎어 놓았다는 것을 믿지만,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부흥시켜 주실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있어 패배주의자의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님과 성령님도 살아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일어나 부흥을 기대하십시오.

히 13:6~8

기뻐하라

부흥에서 기쁨이 나올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당시 문제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시 85:6~7

부흥은 눈물로 시작하더라도, 기쁨과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과거의 죄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과 기쁨은 함께 갑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순전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시 71:20~23

※ 시편 149:1~5 말씀이 주는 은혜를 간단하게 써 보십시오.

지금은 회개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때로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면서, 자신의 뜻에 의지함으로 괴로워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응답해야 합니다. 부흥을 기대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부흥해야 합니다.

합 3:2 _____

※ 부흥하는 삶을 위한 기도시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보십시오.

| 믿음의 기도 |

- ① 우리의 부흥을 기대하며 매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 ③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흥하게 하소서.



[illegible]

※ 설교 중에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성도님은 간증문을 써서 <주간충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여호와께서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열왕기하 24장
찬송가 218장

묵상노트

바벨론이 득세하면서 애굽의 바로는 그 영향력을 상실했고, 유다 왕국도 바벨론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유다를 멸하기 위해 갈대아를 비롯한 연합군을 보낸 것은 바벨론의 마르дук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1~4절). 제1차 바벨론의 침공 이후 여호야קים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야킨은 바벨론에게 항복한 후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야킨을 항복시키고 포로로 잡아가면서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가져갔고,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를 제외한 모든 귀족들과 기술자들과 군사들을 포로로 삼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9~16절). 바벨론은 여호야킨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역시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17~19절).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멸망을 당한 후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아라는 세 왕이 등장을 하는데 시드기야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멸망하기 직전의 유다의 상황이 어떠했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유다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유다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화생이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 길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쉽지 않은 길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과감히 포기하고,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 비천한 자(14절) : 히브리어 본문에는 '가난한 땅의 백성'으로 되어 있다. 반란을 일으킬 능력이 없는 자들을 가리킨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임문 지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왕하 24:2)
The LORD sent Babylonian, Aramean, Moabite and Ammonite raiders against him. He sent them to destroy Judah, in accordance with the word of the LORD proclaimed by his servants the prophets. (2kgs. 24:2)

기도제목

① 세상의 가치관을 과감히 포기하고 주님만 붙들게 하소서. ② 십자가 묵회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십자가 묵회를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유다의 멸망

5

화요일

시드기야는 애굽의 구원병이 오리라고 믿었지만 애굽은 다시 퇴각하여 돌아 갔습니다(렘 37:7). 예루살렘은 약 2년 동안 바벨론에 포위당한 채 양식이 끊어졌고, 군사들은 모두 도주하였으며, 시드기야는 아들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후 두 눈이 뿔뿔히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1~7절). 바벨론은 1차 포로 때보다 더 심각하게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왕정이 부서지고, 다른 모든 중요한 국가 기관들의 파괴도 일어나고,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웠던 보물들은 빼앗기고, 제사장들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처형당합니다(8~21절). 바벨론은 그달리야를 유다의 새로운 총독으로 세워 관할하게 했으며, 그달리야는 남은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종주국으로 섬기는 정책을 계속 시행하자고 선포했습니다(22~26절).

유다의 멸망은 왕의 잘못된 정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은 채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신앙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복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언제나 불만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쥐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남보다 적다는 것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언하기 원합니다.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우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왕하 25:11)

Nebuzaradan the commander of the guard carried into exile the people who remained in the city, along with the rest of the populace and those who had gone over to the king of Babylon. (2kgs. 25:11)

열왕기하 25장
찬송가 508장

묵상노트

• 성벽을 헐었으며(10절) : 고대에는 어떤 성을 점령하면 그 성의 건물과 성벽을 모두 파괴시켜 버리는 풍습이 있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여전히 나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후임 당회장이 청빙되도록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소서.

믿음의 계보

역대상 1장
찬송가 540장

묵상노트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선택되어진 족보입니다. 아담에서 가인이 생략되고 곧바로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에서, 영적인 계보는 육적인 장자권이 아니라 약속과 믿음에 따라 이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1절). '셈, 함, 야벳의 자손들'을 통해 세상에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세우셨습니다(5~27절).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위해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의 세계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후손은 큰 나라를 이루었는지언정 하나님 나라는 상속받지 못했습니다(28~31절). 에서의 후손들과 에돔의 왕들, 족장들은 모두 같은 혈통을 지닌 조상들에게서 나왔습니다(35~54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지구에 묻혔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역대기에 기록된 긴 족보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있고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 족보는 계속 이어져 마태복음 1:1로 연결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는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계보입니다. 우리가 이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 또한 나의 열심과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지도 않고,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부가 아닌, 자신의 삶이 전부일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무엇인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얻고자 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영결(10절)** : 뛰어난 인물로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용기와 재능,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말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대상 1:28)

The sons of Abraham: Isaac and Ishmael. Descendants of Hagar(1chr. 1:28)

기도제목

- ① 믿음의 계보 안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② 출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약속을 이루는 방식

7

목요일

역대상 2장
찬송가 546장

묵상노트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1~2절). 그런데 열두 명의 아들들 중에서 오직 유다만을 택하여 그의 계보를 설명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계승되고 다시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에게로 이어지는데, 그중에서도 헤스론이 낳은 세 아들들 중에서 둘째 아들 람의 계보를 설명하며 유다 가문의 다윗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3~17절). 그리고 헤스론의 세 아들 중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연결되는 람 외에 다른 두 아들 여라므엘과 글루배(갈렙)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18~55절).

언약의 책인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갈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평이한 삶에 개입하셔서 성경을 응하게 하는 쪽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의 위인전기처럼 용감하고, 흠이 없는 삶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보잘것없고 실수투성이인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 말씀도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중에 유다 가문을 사용하셔서 다윗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머느리 다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살몬은 여리고의 이방 여인이자 기생인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에게서 다윗의 조부인 오벳을 낳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규범이나 윤리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때문에 인간 편에서 윤리와 도덕으로 문제 삼으면 많은 부분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내 기준에서 옳은 것을 고집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유다의 머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대상 2:4)

Tamar, Judah's daughter-in-law, bore him Perez and Zerah. Judah had five sons in all.(1chr. 2:4)

• **방백(10절)** : 유다를 다스리던 사람들에게 붙여진 관직 이름.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평이한 삶이지만 여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비록 사로잡혀 간다 하여도

역대상 3장
찬송가 520장

묵상노트

구체적으로 다윗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칠 년 육 개월을 다스리며 여섯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에서 삼십 삼 년을 다스리며 더 많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1~9절). 다윗의 계보는 이제 솔로몬으로 넘어가서 솔로몬의 계보를 다룹니다. 포로기 이전까지의 그의 아들들(10~16절)과 포로기 이후 그의 아들들(17~24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은 모두 다윗 왕국의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시고, 다윗의 후손에게 주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삼하 7:13)는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셨습니다. 이 때문에 때로는 나라가 분열되고 때로는 나라가 멸망하여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닥치며, 비록 약속이 희미해져 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단 한 번도 약속은 파기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당사자들은 죽고 없어질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이 약속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으며, 신약을 사는 우리들도 이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효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비록 절망이 있고 퇴보가 있어도 믿음만은 퇴보할 수 없으며 절망할 수 없습니다.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으며, 우리는 이 세상에 목매는 사람이 아니요, 주님과 함께 할 영원한 나라에 포함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임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 **밋수아(5절)** : 암미엘의 딸이며,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된 밋세바의 다른 이름

사로잡혀 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대상 3:17)

The descendants of Jehoiachin the captive: Shealtiel his son, (1chr. 3:17)

기도제목

① 주님과 함께 할 영원한 나라를 믿기에 세상에서 절망하거나 낙담할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② 2012년 제2차 청지기훈련(6월 22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변성하지 못하였더라

9

토요일

유다의 계보를 기록하여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설명했던 역대기 기자는 4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후손들의 계보를 정리합니다. 먼저 유다의 계보를 기록하며 2장의 명단을 보충하고, 이방인들까지 포함시켜서 유다 가문의 번성함을 보여줍니다(1~23절). 유다 지파가 소개된 후에 시므온의 자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자손의 수가 많이 못 되어 유다 자손들처럼 번성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24~27절). 시므온 지파는 유다 자손의 많은 기업에서 일부를 떼어 받을 만큼 작았는데 결국 유다에 합병되었습니다(수 19:1,9).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지리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사라진 후에도 계속 남아서 거주지를 이동하며 영토를 정복하여 소수가 살아남았음을 설명합니다(28~43절).

야곱을 통해 주신 예언대로(창 49:5~7) 시므온 지파를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시고, 이스라엘의 전역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시므온이 레위와 함께 세겜 성을 무참히 진멸하는 데 앞장서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새로운 민족을 건설해야 할 야곱에게 커다란 위기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입니다(창 34장). 약속을 따라 유다의 가문을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이 시므온의 가문은 흩어지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내 것, 내 가정, 내 직장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잠시 기뻐할 수 있고, 잠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잠시 주어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십니다.

역대상 4장
찬송가 95장

묵상노트

시므온에게는 아들 열여섯과 딸 여섯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많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대상 4:27)

Shimei had sixteen sons and six daughters, but his brothers did not have many children; so their entire clan did not become as numerous as the people of Judah. (1Chr. 4:27)

•공정(14절) : 유다 지파의 계보 내에는 방직업자(21절), 용기장이와 정원사(23절) 등의 여러 직업들이 등장하는데 당시 이들은 특별한 직능인에 속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행 13:2~3). 선교사역을 준비하며 이 말씀으로 세움 받음에 감사했고 주님은 늘 내가 계획하지 못한 것을 하게 하심을 느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 기쁨으로 준비하고 출발했다. 선교지는 몹시 무더운 나라로 1년 중 가장 더울 때가 4월이라고 한다. 처음의 각오와는 달리 쉽게 지쳤다. 땅의 열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거우 이 정도로 힘들다고 하느냐”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부끄러웠다. 사람들은 순수했고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 방학이라 집집마다 아이들이 많아 전하기가 좋았고 찬양을 가르치니 재미있게 따라했다. 또 어떤 곳에는 나도 예수님을 들어보았고 안다고 했다.

명절이라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소란스럽게 놀고 있는데 멀리서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남루한 옷에 한쪽 손이 잘리고 없었다. 그에게로 달려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니 “아멘”했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 혼자 쪼그리고 앉아 성경말씀을 읽고 있었다. “그래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야”하고 감탄하며 감사했다. 두 다리가 없는 사람도 말씀을 듣는 표정이 즐거웠고 영접기도를 받았다. 마루에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계셔서 말씀을 전하니 매우 반기며 성경을 읽어보시고 “아멘, 아멘” 하신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주일 오후에는 병원사역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육신은 비참했고 영혼은 죽어있었다.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니 “아멘”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롬 10:16~18). 할렐루야! 내가 전한 복음이 다 퍼져 나갔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게 되었다.

나는 심었고 성령님이 길러 주실 것을 믿으며 또 다시 외진 곳에 가니 10살 된 소경 아이가 있었다. “주님! 이곳에 권능을 베푸시사 어두운 눈을 뜨게 하소서” 기도하고 그가 비록 육신은 어두울지라도 영의 눈은 환히 밝았으리라 믿으며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임을 알게 된 이번 사역은 기쁨의 사역이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박차화(권사, 9교구)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0 주일

11 월요일 ☐역대상 5장12 화요일 ☐역대상 6장13 수요일 ☐역대상 7장14 목요일 ☐역대상 8장15 금요일 ☐역대상 9장16 토요일 ☐역대상 10장

하나님의 손

God's Hand

| 초점 |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다

| 찬송 |

찬송가 406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가 291장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 본문 | 출애굽기 7:4~5

⁽⁴⁾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⁵⁾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출 5:1~2). 이에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출 5:22~23

모세는 애굽에 갈 때 나쁜 이력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무기도 없이 빈손으로 애굽에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로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반면 애굽인들과 애굽왕은 주 하나님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도록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출 6:6~8).

※ 모세와 같은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주님의 손의 두 측면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는 심판, 다른 하나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강력한 두 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을 알 것입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대적해 손을 펴셨습니다.

출 7:5

※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을 지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창 41:38~41).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은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출 1:14,22). 애굽의 감독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그들을 종살이로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갈 6:7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승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십니다.

출 7:4 _____

하나님은 불타는 가시덤불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자유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가심으로 그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여러 가지 재앙으로 경고하셨습니다.

※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십시오.

- | | |
|---------|---------|
| ① _____ | ② _____ |
| ③ _____ | ④ _____ |
| ⑤ _____ | ⑥ _____ |
| ⑦ _____ | ⑧ _____ |
| ⑨ _____ | ⑩ _____ |

이스라엘의 자유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출 6:6~7 _____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만방에 당신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리셨습니다.

출 7:5 /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_____ 하시매

하나님의 재앙들은 바로의 마음을 격분시켰지만,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자유를 허락하였습니다(출 12:31). 애굽인들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깨달은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남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자유롭게 걸어 나오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손을 펴십니다. 이때 손을 잡으면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뿌리치면 심판을 받습니다.

롬 8:28 _____

고후 5:10 _____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일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이 자유히 갈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확신과 완전한 헌신을 받으실 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 손이 애굽인들에게는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믿으십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손을 잡아 자유하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여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이 꼭 필요합니다.

사 59:1~2

롬 2:5

| 믿음의 기도 |

- ① 예수님을 통하여 내민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소서.
- ②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 ③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 우리 구역(팀)이 되게 하소서.





르우벤은 장자라도

역대상 5장
찬송가 90장

묵상노트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자이면서도 그의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에 장자의 명분이 유다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요단 강을 사이에 두고 자기 동족과 떨어져 동쪽에 살았습니다(1~10절). 요단강 동쪽에 거주한 지파는 르우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도 요단 동쪽에서 살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정복한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는 용사들이 많았습니다(18~22절).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버려서 앗수르 왕의 점령을 당하게 하셨습니다(23~26절).

르우벤이 장자의 특권을 상실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이 이유라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도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 여인들이 대거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언제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관습이나 윤리나 도덕적인 잣대가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성경은 언제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윤리 도덕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문제 많은 인간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믿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대상 5:1))

The sons of Reuben the firstborn of Israel (he was the firstborn, but when he defiled his father's marriage bed, his rights as firstborn were given to the sons of Joseph son of Israel; so he could not be listed in the genealogical record in accordance with his birthright).(1chr. 5:1)

• 유브라데 ... 지경까지(9절) : 르우벤 지파가 번성할 때의 영토를 가리킨다.

기도제목

① 문제 많은 죄인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신 은혜의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충성스러운 언약 백성

12

화요일

역대상 6장
찬송가 502장

묵상노트

아론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벳론 포로로 끌려갈 당시 대제사장인 여호사닥까지의 대제사장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1~15절). 그 후 레위의 세 아들이 낳은 자손들의 족보를 보여줍니다(16~30절). 이어서 레위 지파 가운데 여호와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을 소개합니다. 레위의 아들들 중 그핫의 자손 헤만(33절)과 게르손의 자손 아삽(39절), 므라리의 자손 에단(44절)이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다고 설명합니다(31~48절). 끝으로 아론 자손들의 임무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흠여져 사는 레위 자손들의 거주지에 대한 기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성읍들은 여호수아 21장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49~81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과 다윗 왕국에 충성스러운 언약 백성들을 통해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해 가시지만, 성전 예배와 다윗 왕국에 소환한 백성들은 약속의 반열에서 제외시키십니다. 레위 시대부터 포로기 이후 시대까지 언급된 제사장 명단에 사무엘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후손 아비아달 등이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의 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삼상 2:29~31).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거룩한 제사장의 반열에서 끊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그릇 행하여 레위 자손들조차 우상을 숭배할 때, 성전에서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한 사독 자손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특권을 이어 갔습니다. 시대가 변하여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시대를 따라가다 보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리 삶의 환경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진 우리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따라 복음을 증언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 **사독(53절)** :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과 함께 다윗 시대에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체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아도니야의 반란 때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를 지지한 데 반해, 사독은 솔로몬의 편에 섰으며, 이런 연유로 그의 후손은 B.C. 587년 유다 멸망때까지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다.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대상 6:8)

Ahitub the father of Zadok, Zadok the father of Ahimaaz. (1 Chr. 6:8)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오늘도 충성스럽게 십자가를 보며 주님 따라가는 신실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역대상 7장
산송가 369장

묵상노트

요단 동편의 지파인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족보를 다루었던 5장과 자신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던 제사장 계열의 레위 지파를 소개한 6장에 이어 7장에서는 요단 서편에 위치한 나머지 지파들의 족보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잇사갈(1~5절), 베냐민(6~12절), 납달리(13절), 므낫세 반 지파(14~19절), 에브라임(20~29절), 아셀(30~40절) 지파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족보와 아울러 이들이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단과 스불론 자손들이 빠진 것은 역대기 기자가 단 지파의 우상 숭배에 대해 책임을 묻은 것으로 보입니다(cf. 사 18:27~29 ; 왕상 12:29~30).

하나님은 야곱의 첩인 빌하가 낳은 납달리 자손들을 비천함에서 구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창 49:15).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마 4:15~16)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첫 복음의 선포가 이방 땅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섬겼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식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다 보면 결국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고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켰으며, 자신들은 십일조와 이웃 사랑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 토라(28절): ‘기업’과 비슷한 말로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여가는 재산의 옮겨짐을 가리킨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롬이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대상 7:13)

The sons of Naphtali: Jahziel, Guni, Jezer and Shillem --the descendants of Bilhah.(1Chr. 7:13)

기도제목

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한낱 인간의 열심으로 바꿔 버리지 않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사울의 아들 요나단

14

목요일

베냐민 지파가 7장에 이어 다시금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시작한 사울 왕에 대한 기록과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9장의 기록을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하라임이 내보낸 '후심'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내보낸 하갈을 위로하셔서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뤄 주신 것과 같습니다(8~28절).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과 요나단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가는 비록 1대에 그쳤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사울의 계보는 끊기지 않았고 오히려 큰 용사의 가문으로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40절).

사울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되었지만,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이지만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을 통하여 그의 후손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누구 편에 설 것인가의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자의 편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나에게 현실적인 유익을 주는 사람들의 편에 서면 모든 것을 얻은 듯 기뻐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의 마음을 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철저히 버려져서 쫓기는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서 서서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습니다. 현실 앞에서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누구 편에 설 것입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8장

찬송가 407장

묵상노트

별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시울을 낳고 시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니담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대상 8:33)

Ner was the father of Kish, Kish the father of Saul, and Saul the father of Jonathan, Malki-Shua, Abinadab and Esh-Baal.(1chr. 8:33)

• **므솔람(17절)** : 23절의 하난, 24절의 엘람과 하나나와 함께 바벨론 포로기 이후 시대에 속한 인물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고 늘 주님 편에 서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역대상 9장
찬송가 380장

묵상노트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참여한, 각 지파 백성들과 레위인의 명단과 계보에 관한 기록입니다. 특히 9장은 1~8장에 기록된 족보의 결론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간 것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합니다(1절). 따라서 바벨론 귀환 후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살면서 예루살렘과 신정왕국의 재건에 지대한 공을 세운 유다 지파(3~6절), 베냐민 지파(7~9절)를 부각시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10~13절), 레위 사람들(14~16절), 회막 문지기(17~27절)들을 소개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닫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다시 예루살렘에 아침이 왔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머지 레위 사람들의 직무(28~34절)와 사울의 족보를 언급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35~44절).

다시는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유다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중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믿지 않거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시급한 것으로 여기지만, 믿는 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가장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생활하던 그들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먼저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 잠잘 곳이 있어야 맞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먹고, 당장 잘 곳이 없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걱정은 하나님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먼저입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 왕의 문(18절) : 문지기 가운데 우두머리는 왕이 사용하는 문을 지키는 책임을 맡았다. 성막문은 하나님의 결정을 알리는 장소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였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임 사람들이라(대상 9:2)

Now the first to resettle in their own towns were some Israelites, priests, Levites and temple servants. (1 chr. 9:2)

기도제목

① 내 삶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사울의 자존심

16

토요일

사울 왕의 죽음 다루고 있습니다. 1~9장의 긴 족보를 마무리하며 다시 사울의 족보와 사울 왕가의 몰락을 기록한 것은,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하는 다윗 왕권의 정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었지만 자신의 명예가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합니다(3~5절). 길르앗야베스 사람들은 한때 자신들을 구한 사울 왕의 시신을 거두어 정성껏 장사를 지내며 애도했습니다(11~12절). 사울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먼저 들었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습니다(13~14절).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고 폐하여짐, 온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후계자도 없이 온 집안이 수 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값은 사망(롬 6:23)임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가 또한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이 죽음을 면하는 방법 또한 하나님은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이 없음을 설명합니다.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며, 모두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와 같은 용서를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용서받는 자리가 아닌, 자존심을 지키는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기 바랍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대상 10:4)

Saul said to his armor-bearer, "Draw your sword and run me through, or these uncircumcised fellows will come and abuse me." But his armor-bearer was terrified and would not do it; so Saul took his own sword and fell on it.(1chr. 10:4)

역대상 10장
찬송가 254장

묵상노트

• 길보아 산(8절) : 해발 529m, 잇사갈 지파 경내에 있는 모래 언덕 남쪽에 위치한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말씀 앞에 자존심을 버리고, 늘 회개하며 은혜를 맛보게 하소서.
-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을 복음의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후임 당회장이 청빙되도록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소서.



복음주의 연구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로마서 10:16)

1. 복음은 명령이다

복음은 인간에게 명령으로 내려졌다(행 17:30~31). 복음의 명령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진 자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다. 복음이 명령의 형태로 임한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보전하기 위함이다(마 25:31~34). 복음은 권능과 위력을 지닌 신령한 명령이다(렘 24:7 ; 신 30:6).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내려졌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수적인 의무이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면 죄의 면류관을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복음의 잔치에 초대받고 오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다. 명령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나, 순종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2. 복음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의 메시지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민 21:8~9).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롬 5:9~11).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초대한다(사 1:18).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이 영원부터 복음에 있었다는 것이다(행 24:25~29). 복음을 거부한 것으로 기뻐하는 죄를 범하지 말자. 아직도 복음을 듣고만 있는가? 큰 보좌 앞에 설 때에는 회개하지 못한 죄에 대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가 없다(계 20:11~15).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죄를 확인시켜 줄 때 피하지 말고 죄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

3. 복음의 순종이 무엇인가

복음에 순종하려면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롬 10:17~18). 복음은 듣고 싶은 것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싶은 진지함이 있어야 한다. 죄에서 다시 살게 하는 진리는 내 속에 감추어진 것을 다 들춰내게 하는 복음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 복음의 순종은 자신을 포기하고,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다(롬 6:4,8 ; 딤후 2:4~6). 주님은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군사는 임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그 때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군사다(롬 8:38~39).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악함과 경건치 못함과 악함을 고백하는 자를 원하신다(골 3:1~4 ; 마 16:24). 아멘.

2012년 제1차 청지기훈련 메시지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7 주일

18 월요일 ☐ 요한계시록 11장19 화요일 ☐ 요한계시록 12장20 수요일 ☐ 요한계시록 13장21 목요일 ☐ 요한계시록 14장22 금요일 ☐ 요한계시록 15장23 토요일 ☐ 요한계시록 16장

3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다

Jethro Gives Burnt Offering & Sacrifices

| 초점 |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드러야 한다

| 찬송 |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본문 | 출애굽기 18:8~12

⁽⁸⁾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⁹⁾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¹⁰⁾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¹¹⁾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므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¹²⁾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는 바뀌었습니다. 그는 한때 많은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모세로부터 출애굽에 관한 모든 일을 들은 후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께 경배했습니다. 이드로는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고히 하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출 18:12

※ 나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인생 이야기는 매우 고독하고 많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과 그 의미를 쓴 뒤, 모세가 겪었던 삶의 굴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광야로 데려와 모세와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아내와 아이들과 재회한다는 사실이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모세의 책임은 이드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판과 개인적인 간증, 명백한 설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평판이 좋지 않았다

애굽으로 떠나기 전 모세의 평판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돌아온 직후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출 4:18 _____

출 4:25~26 _____

모세가 200만이 넘는 백성들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기쁜 소식을 들은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모세의 평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가족은 그와 다시 합류했습니다.

※ 모세의 평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각자의 대외 이미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갖고 평생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간증

이스라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모세의 개인적인 간증으로 인해, 이드로가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 18:8

모세는 열 재앙, 홍해의 갈라짐, 하늘에서 내린 만나, 바위에서 난 물 등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에 관한 세세한 이야기를 간증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어야 합니다.

요 14:6

딤후 4:2

예수님은 만인의 삶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실 해답이십니다. 바울은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고린도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간증을 나누어 보십시오.

명백한 설득

모세의 설득이 이드로를 이끌어 여호와를 신뢰하게 했습니다.

출 18:9~11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들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심을 확신했으며,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벗어나 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드로는 여러 거짓 신을 믿던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사역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과 생각은 그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 이드로의 변화를 보면서 현재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태도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마 18:6

우리는 복음이 닿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결론을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되며, 결코 어느 누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드로를 기억하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올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평판, 개인적인 간증과 명백한 설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우리 주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전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롬 6:13 _____

롬 12:1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나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드리게 하소서.
- ②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증인과 일곱째 나팔

요한계시록 11장
찬송가 360장

묵상노트

크게 두 증인(1~13절)에 관한 말씀과 일곱째 나팔(14~19절)의 시작입니다. 두 증인은 마지막 때의 '교회'와 '교회의 모든 예언자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두 증인을 감람나무와 쏫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쏫대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살렘듯이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두 증인은 교회의 증거자로서, 주의 말씀을 증언합니다(7절). 그러나 그 증언이 마치자마자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그 증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맙니다(7~10절). 그러나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어 교회의 승리와 영광을 만천하에 나타내십니다(13절). 그리고 나서 셋째 화가 속히 이를 것을 말씀하시며 곧이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집니다(14~15절). 일곱째 나팔은 교회의 승리와 회복을 보다 확실하게 드러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방 세상에 대해서 재앙과 멸망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며, 복음을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빛을 혐오하게 여기듯이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증인이 무저갱으로부터 나온 짐승들에게 핍박과 함께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이 어찌면 우리도 복음에 매여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심한 모욕과 고난을 당할 것이며 순교에 버금가는 큰 시련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부활,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영광된 승리와 교회의 회복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 무저갱(7절) : 헬라어 '아뷔소스', 영어로는 'abyss(심연, bottomless depth)(무한한 나락)'로 번역된다. 일반적으로 지옥을 의미하나, 사탄이 거처하는 지옥의 더 깊은 나락을 가리킨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다 하니(계 11:15)

The seventh angel sounded his trumpet, and there were loud voices in heaven, which said: "The kingdom of the world has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and of his Christ, and he will reign for ever and ever." (rev 11:15)

기도제목

- ①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여자’로 상징된 교회가 ‘용’으로 상징된 사탄에게서 점차 꺾박받게 될 것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러한 꺾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셔서 모두가 실족하지 않고 영광의 구원에 이르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것임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정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대체로 ‘보편 교회’로 이해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3:15에서 뱀(사탄)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그 예언이 본장에서 상징적으로 이루어졌고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적그리스도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믿는 교회의 신자들을 방해하고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곧 영적 전쟁,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은 교회의 신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달려들고 있습니다(17절). 이것은 추상적이거나 단순히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이야기이며 분명한 신자의 실존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영적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 무장은 그렇다 치고라도 믿음 생활이 영적 전투라는 사실만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은 믿음 생활이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며 자식들 잘 건사하는 것쯤으로 믿음 생활을 이해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사탄이 발악하며 달려들고 있음에도 우리는 전혀 태연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나 겁낼 필요도, 겁에 질려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계 12:12)

Therefore rejoice, you heavens and you who dwell in them! But woe to the earth and the sea, because the devil has gone down to you! He is filled with fury, because he knows that his time is short. (rev 12:12)

요한계시록 12장
찬송가 353장

묵상노트

• 관(1절) : 군주 또는 최고 통치자를 상징하는 머리 띠, 또는 왕관을 의미한다. 특별히 ‘열 두 별의 관’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 또는 열 두 사도의 권한과 통치, 왕권을 시사한다.

기도제목

- 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전투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② 천지기후련을 준비하는 모든 일꾼들의 심령에 복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13장
찬송가 338장

묵상노트

· 표(16절) : 헬라어 '카라 그마'로서 '기호(mark)', '인(seal)'의 의미를 갖고 있다. 문서상의 공식적 증거물로 남기는 '날인'이나 주인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하여 짐승이나 노예에게 찍는 '낙인' 등에 쓰이는 단어이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표'는 두 가지의 상반된 의미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의미(계 7:3)와 반대로 짐승(사탄)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16절에 나타난 의미는 후자, 즉 사탄의 표를 의미한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전심으로 그 짐승(사탄)에게 충성, 복종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는 결코 관계가 없다.

사탄의 계속적인 핍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환상(1~10절)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환상(11~18절)으로 구분되어 진술되고 있습니다. 이 두 짐승은 용의 부하들로서 교회에 대한 사탄의 핍박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 세상의 권력을 통하여 교회를 억압하는 것으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데 교회의 내부에 들어와서 복음의 바른 진리를 말살시키고 부패시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탄의 공모와 미혹은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경배하게 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경하게 하는 일들을 자행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목적하고 있는 바이며,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면서도 명백하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과 핍박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는 더욱 빛이 나며 그 의미가 더욱 부각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10절).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인 자세와 태도를 보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으십니까? 이러한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 앞에 다양한 삶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다양할 수 없고, 다양해서는 안 되는 복음의 절대성과 진정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타협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분명 사탄의 지략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며, 그들의 핍박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갈 때, 그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계 13:10)

If anyone is to go into captivity, into captivity he will go. If anyone is to be killed with the sword, with the sword he will be killed. This calls for patient endurance and faithfulness on the part of the saints. (rev 13:10)

기도제목

- 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인내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거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노트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장차 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심송의 표' 받기를 거절하다가 죽임을 당한 신실한 성도들이 앞으로 받게 될 영광된 상급과 반면에 심송을 경배하는 자들이 받을 최후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인침 받은 십사만 사천 명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1절)이 환난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줌으로 시작합니다(2~5절). 그리고 사탄과 그 하수인 및 불신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예고하면서(6~12절). 그때 그들은 성도들과는 달리 모두 진노의 심판에 처해질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17~20절).

이것이야말로 신자의 위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들이 누려야 할 위로와 격려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에게 결코 그 어떠한 위로와 격려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만약 세상에서 자신의 위로와 상급을 얻고자 한다면, 그는 결코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놀라운 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곳곳이 이겨낼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이며, 주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썩어질 세상의 축복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켜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계 14:13)

Then I heard a voice from heaven say, "Write: Blessed are the dead who die in the Lord from now on." "Yes," says the Spirit, "they will rest from their labor, for their deeds will follow them." (rev 14:13)

요한계시록 14장
찬송가 376장

묵상노트

• 음행(8절) : 헬라어, '포이네이아스'로서, '창녀'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 간통, 간음이란 뜻이었으며, 사탄에 대한 우상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음행'의 의미는 단순한 '육체적 간음' 이상의 '영적 간음(음행)'을 강조한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 ① 우리의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로만 집중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닌 영원의 세계를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 ② 2012년 제2차 청지기훈련(6월 22 일 금요일, 7시에)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요한계시록 15장
찬송가 419장

묵상노트

15장부터 16장까지는 소위 '일곱 대접의 재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입니다. '일곱'이라는 의미는 앞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과 보편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적으로 공의롭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며 모든 인류가 보게 될 명백한 사실임을 가리킵니다.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가리켜 위대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찬양하는 장면(2~4절)과 일곱 천사들이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을 가지고 나타나는 장면(5~8절)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재앙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재앙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합니다. 마지막 재앙이면, 정말 두렵고 무서우며 몸서리치게 하는 공포가 그 전체의 분위기를 휩싸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의 공포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찬양과 경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세상의 영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음란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앞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자,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적 음란과 패역함으로 죄악과 교만의 극치를 보이게 될 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 **의로우신 일(4절)** : 헬라어, '디카이오마'이다. '옳은 행동', '옳은 법칙', '정당성'의 뜻을 가지며 여기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이 정당하고 공의로운 것임을 암시한다. 악한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선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가리킨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계 15:4)

Who will not fear you, O Lord, and bring glory to your name? For you alone are holy. All nations will come and worship before you, for your righteous acts have been revealed. (rev. 15:4)

기도제목

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은혜로 동성한 제2차 청지기훈련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요한계시록 16장
찬송가 283장

묵상노트

이제 모든 것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이 남았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 응답하시며, 또 그들의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고자 내리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일은 지체 없이 시행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지연도, 방해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참으로 기이함을 넘어서서 아연실색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이 재앙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결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8,11,21절).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이며, 타락하여 패역한 인간의 종국적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불공평하거나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며 패역한 자들을 향한 공의의 칼날입니다. 그들은 결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정당한 대가 앞에 그 어떠한 말도 없이 순순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도리어 욕을 하며 저주하고 비방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의 모습입니까? 재앙이 코면 클수록 하나님께 대한 비방의 목소리는 더욱 커집니다. 이것이 심판 받는 죄인들의 모습이며 죄의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당당함을 넘어서서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찬 죄인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죄악 된 본성이 있으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의 교만과 자존심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신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계 16:7)

And I heard the altar respond: "Yes, Lord God Almighty, true and just are your judgments." (rev. 16:7)

• 아바갯돈(16절) : 히브리어 '하르 므깃도', 즉 '작은 므깃도' 선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아바갯돈'은 어떤 특정한 지형적 장소를 지칭하기 보다는 '군대를 소집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가다드'의 명사형 '파게드'에서 파생된 단어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과 대결하여 그들을 패배시킬 종말론적 전쟁을 위한 상징적 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우리 자신의 죄인 됨을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믿음 안의 또 다른 교만



매주 금요일, 온 성도가 주님을 향한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이 날은 제게 더없이 소중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한데 이번 금요일은 청지기훈련이라서 더 강한 말씀이 있었고 복음 앞에 순종하는 길로 안내 받는 날이기에 제게 영원히 기념일이 될 듯합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거부하며 오만한 삶을 살았기에 교만과 허무함으로 인한 절망 사이를 수없이 오갔던 저에게 오늘의 말씀은 그야말로 빛이고 진리이자 생명으로 마음속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거짓과도 같은 허무일 뿐인 쾌락과 교만에 빠져있던 저의 발길을 친히 우리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해 주셨음에도 제게 주어진 책임인 순종함이 없었음을 오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삶을 살 때에 제 죄의 막중함을 모르고 살았음을 회개하면서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현재 매 순간 순간 감사하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채 세상의 사람들에 섞이어 겉으로 구별되는 어떤 차이도 없이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저를 돌아

남수녀의 삶과 사랑

보았습니다. 또한 이성과 갈등하곤 했던 제 약하고 어리석었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그 계획을 한계를 가진 인간의 이성으로써 이해하려 했던 것 자체가 믿음 안의 또 다른 교만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밤중에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길을 걷다 갑작스레 터져 나오는 한숨도, 미간의 주름까지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교만함으로 인해 나를 부인하지 못할 때문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음 앞에 인도된 우리는 어쩌면 이미 쉬운 길을 제시받았습니다. 모든 교만함을 버린 채 들고 들으며 순종하는 길.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욥 42:3). 이 회개가 저의 진실된 회개가 되게 하는 동시에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함을 잃지 않고 복음 앞에 고개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리워진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게 들으셨으리라 믿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황슬앞(청년1부)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4 주일

25 월요일

☐ 요한계시록 17장

26 화요일

☐ 요한계시록 18장

27 수요일

☐ 요한계시록 19장

28 목요일

☐ 요한계시록 20장

29 금요일

☐ 요한계시록 21장

30 토요일

☐ 요한계시록 22장

문 밖에 계신 예수님

Jesus At The Door

| 초점 |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한다

| 찬송 |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 본문 | 요한계시록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의 메시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며, 아마도 이 말씀은 그림으로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밧모섬으로 유배당해 있는 동안 이 생생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계 1:9~11 _____

각 교회는 개별적으로 예수님께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각 교회 별로 성령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마다 들어야 한다는 말로써 끝맺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절을 주의 깊게 들어 봅시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어디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가?

예수님은 마음의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계 3:20 _____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몸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 문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으며, 그 문을 열게 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 문을 열게 만들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그들의 마음 문을 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마음으로 들어갈 입구를 찾으신다니,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히 4:14~16 _____

우리는 우리 주님이 겸손히 임재하신다는 복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셔야 함이 얼마나 이상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안으로 모시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두드리시는가?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십니다.

계 3:20 /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_____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노크하시는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환경을 움직이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손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세상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열어 달라고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예언 성취를 위한 무대를 만들고 계십니다. 열방과 만물도 그분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히 1:1~3 _____

마 11:28 _____

※ 누가복음 24:44~48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지시게 함으로 여러분의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하게 하십시오.

문을 열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문을 열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십니다.

※ 요한계시록 3:20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역할은 문을 여는 것이고, 주님의 역할은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십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본성의 참여자들이 됩니다.

벧후 1:4

요 1:12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어 들일 때, 여러분의 몸 전체가 주님의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영접하면, 만왕의 왕과 함께 있게 됩니다.

고전 6:19~20

요 14:23

주 예수님이 노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지금,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선물이 거저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안으로 모셔들이십시오. 계속 기다리면 너무 늦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이 죽거나 영접하지 않은 채로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요 13:20 _____

벧후 3:9~10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마음의 문을 열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구역(팀)이 되게 하소서.



[illegible]

※ <총현의 만나>를 통해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간총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psalms1715@naver.com



요한계시록 17장
찬송가 259장

묵상노트

• 큰 음녀(절) : 헬라어로 '테스 포르네스'이다. 본서가 기록되었던 당대의 의미로 보면, 사치와 허영에 빠져 있고 도덕적으로 문란하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던 사도 요한 당시의 '로마'를 상징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도 이러한 영적 '로마', 즉 신자의 믿음을 훼손하고 방해하는 악한 영 그 모두를 의미한다.

'큰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역사는 큰 성 바벨론을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들의 죄악상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패역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3절), 또한 음란과 가증함이 저들의 이름표가 될 정도로 극도의 악함을 보이고 있습니다(4~5절).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의 환상(1~6절)과 그 환상에 대한 해석(7~18절)입니다. '음녀', 곧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와 각종 죄악 및 향락에 탐닉해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짐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적 패배를 당했으나, 일시적으로 세력을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최후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사탄의 하수인으로서의 세상 권력을 상징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의 총체를 의미하며 적그리스도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심된 내용은, 결국 성도는 승리하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우리의 주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단지 사탄은 최후로 발악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신자는 결국에 승리합니다. 이 승리는 선택 사항도 아니고 신자의 손에 의탁된 약속도 아닙니다. 신자의 승리는 확실한 보증 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의 권세 위에 신자의 승리가 확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승리이고 확고한 보장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위에 분명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주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며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대(계 17:14)

They will make war against the Lamb, but the Lamb will overcome them because he is Lord of lords and King of kings--and with him will be his called, chosen and faithful followers.(rev. 17:14)

기도제목

- 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그 보혈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 ② 충현 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시설 공사 및 양로원,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17장에 이어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천사의 전주곡(1~8절)을 시작으로 하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탄식을 외치는 무리들의 애곡소리(9~20절)를 진술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최후를 나타내고 있는 장면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의 큰 상업 도시의 멸망을 통해서 음녀 바벨론의 최후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어떤 특정한 도시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악 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바벨론은 패역한 세상, 타락한 문화, 어그러진 인간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은 죄악 그 자체이며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벨론, 바로 그들에게는 거대한 힘과 사악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수식하고 있는 단어는 다름 아닌 '큰 성'입니다. 바벨론은 웅장하고 강합니다. 모든 것을 지배할 것 같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거대한 세상의 논리 앞에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적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다는 선언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큰 성 바벨론도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의 심판은 분명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맙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진실로 믿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찬송가 274장

묵상노트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계 18:20)

Rejoice over her, O heaven! Rejoice, saints and apostles and prophets! God has judged her for the way she treated you. (rev. 18:20)

• **모이는 곳(2절)**: '더러운 땅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란 모세 율법이 금하고 있는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바벨론 도시에 가득했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사탄의 하수인 귀신들이나 악령들이 세상의 도시 바벨론에 넘쳐났음을 시사한다.

기도제목

- ① 세상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오직 지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만을 걷게 하소서.
-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늘의 찬송

요한계시록 19장
찬송가 161장

묵상노트

주목할 만한 변화가 19장부터 시작되어 환난이 종말을 고하고 천국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성도들과 천사들은 기쁨과 승리의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최후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게 올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하여 서술합니다. 이것은 앞장(18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상인들과 선원들의 애곡소리(계 18:9~20)와는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승리의 환희와 기쁨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세상의 멸망은 곧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의 패망을 가리키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늘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던 기쁨의 순간입니까? 그날은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10절).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더욱 ‘복음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현실 삶의 번영을 더욱 갈망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에서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찬송을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실존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더욱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의 길을 걷기 바랍니다.

• **할렐루야(1절)** : 이 단어의 헬라어, 히브리어의 음역은 한글번역과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또는 알렐루야)이다. 이 단어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이며, 제사와 예배 또는 기도 시에 사용되어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표현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말이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계 19:1)

After this I heard what sounded like the roar of a great multitude in heaven shouting: "Hallelujah! Salvation and glory and power belong to our God, (rev. 19:1)

기도제목

- ① 하늘의 찬송을 부를 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짐승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앞장(19장)에 이어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통치하는 천 년 왕국과 최후의 심판에 이루어질 놀라운 사실, 악의 세력에게 내려지는 영원한 '둘째 사망'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작은 한 천사에 의해서 사탄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천 년 동안 감금되고 참된 성도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동시에 이 천 년 왕국은 사탄의 세력에 의해 지배되던 세상으로부터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7~10절에는 천 년 동안 무저갱에 감금되었던 사탄이 일시적으로 풀려나 '곡'과 '마곡'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 패하여 영원한 유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여태껏 계속되어졌던 하나님과 사탄, 성도들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선과 악 사이의 투쟁이 영원히 종식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11절 이후에는 '흰 보좌 심판'에 의한 둘째 사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 년 왕국'을 통해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또는 계시록을 주의 깊게 읽어 본 신자라면 '천 년 왕국'에 관해 크든 작든 한 번쯤은 의문 내지는 질문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위 '무천년설', '천년년설' 그리고 '후천년설'이라는 용어로 우리들을 곤란하게 하던 단어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용어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술한 천 년 왕국에 관한 세 가지 견해도 결국 하나의 사실만큼은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구주 예수께서 분명히 언젠가 이 세상에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천 년 왕국! 주께서 우리와 함께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는 앞으로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계 20:6)
Blessed and holy are those who have part in the first resurrection. The second death has no power over them, but they will be priests of God and of Christ and will reign with him for a thousand years.(rev 20:6)

요한계시록 20장
찬송가 442장

묵상노트

• 천 년(2~7절) : 천 년 왕국에 관해서는 세 가지 학설이 있다. ①천천년설 - 천 년 왕국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견해 ②후천년설 - 천 년 왕국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견해 ③무천년설 - 천 년 왕국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는 견해 결국 세 견해의 구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인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도노트

기도제목

①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찬송가 236장

묵상노트

• 새 하늘과 새 땅(1절) :
'새'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노스'는 시간적 의미의 '네오스'와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즉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질적으로 완전한 변화, 회복을 가리킨다.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될 곳을 나타낸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외관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은 그곳에서의 생활이 특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9~27절에서는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늘나라의 상징이며 그곳의 주인공이 될 교회의 표상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계 1:8). 1장에서 시작된 이 선언은 본서가 끝맺어지고 있는 이 시점, 즉 6절에서 다시금 반복되어 선언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6절). 이것은 마치 균형 잡힌 평형추를 보듯이, 처음과 나중에 되신 예수께서 모든 역사와 인생의 시작과 마침이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의 구주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은 주께서 계획하셨고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성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분명 우리 신앙의 절정이며, 동시에 고통 받는 성도들에게는 돌도 없는 위로의 정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완성이며 최고점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에서 비로소 참된 안식과 쉬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통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그 평강과 기쁨은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맛보지 못했던 무한한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할 그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그 날을 고대하며 믿음의 경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 21:7)

He who overcomes will inherit all this, and I will be his God and he will be my son. (rev. 21:7)

기도제목

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 자신을 부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30

토요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 이후 잃어버렸던 에덴동산의 삶을 회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비로소 완전한 생명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회복의 증표로 완전한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1~5절). 창세기 2:9에 나타난 그 '생명나무', 그것이 다시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에덴동산의 회복,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최종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6~21절은 계시록 전체의 결론 부분으로서 지금까지 진술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간략한 개관과 마지막 인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받을 상급은 확실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 살 동안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마지막 권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갖고 계시는 구주의 놀라운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와 신자의 구원과 믿음, 그리고 내세의 관점에서 직시해야 할 현재의 삶에 대한 통찰, 그리고 앞으로 역사 속에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그 놀라운 약속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으며 이제 머지않아 예언의 성취이며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인이 보는 가운데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듯,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He who testifies to these things says, "Yes, I am coming soon." Amen. Come, Lord Jesus. (rev. 22:20)

요한계시록 22장
찬송가 179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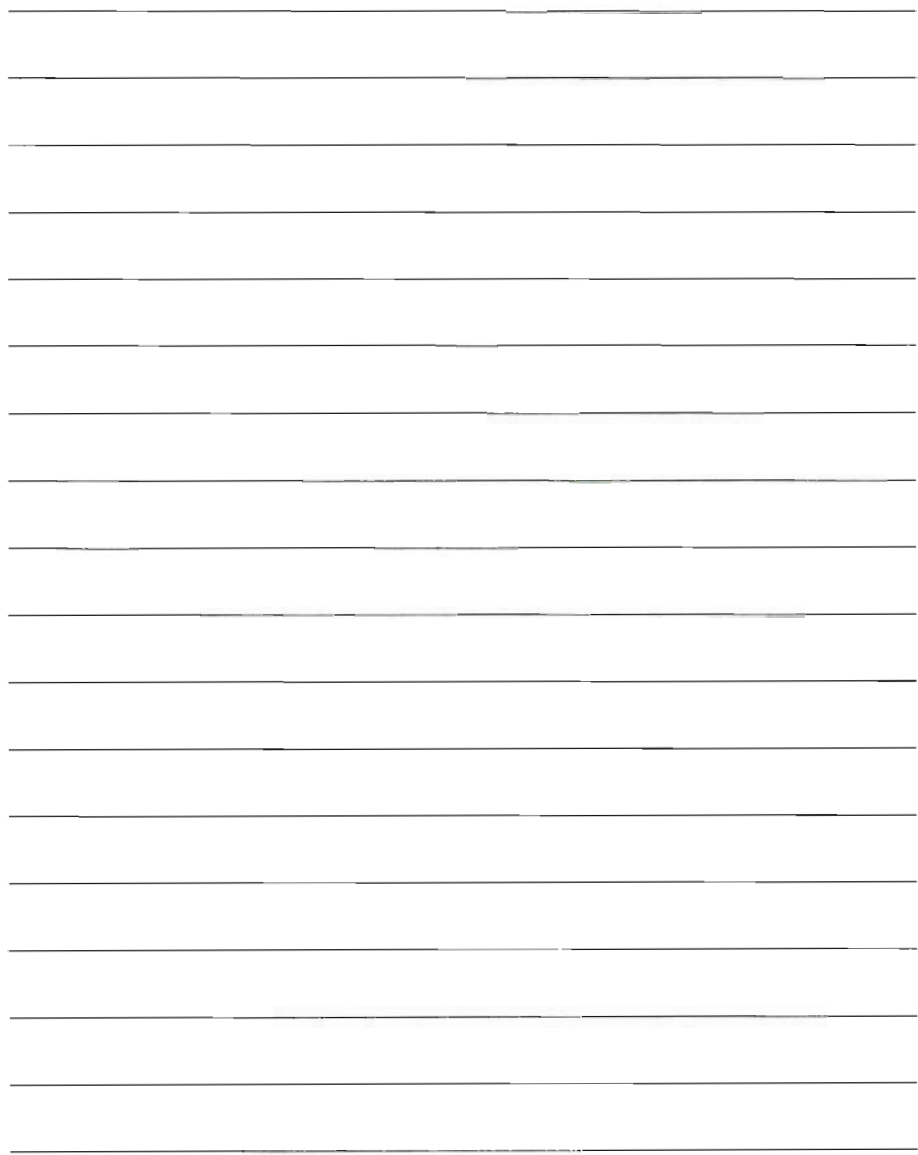
묵상노트

•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절) : 헬라어로 '에르 퀴 에 퀴리 에 에쉬' 라고 한다. 아람어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인 '마라 나타' 라고 한다. 이 문구는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표현으로서, 초대교회 공예배 시에 사용되던 공식적인 신앙고백이었다.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초대교회의 신앙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기도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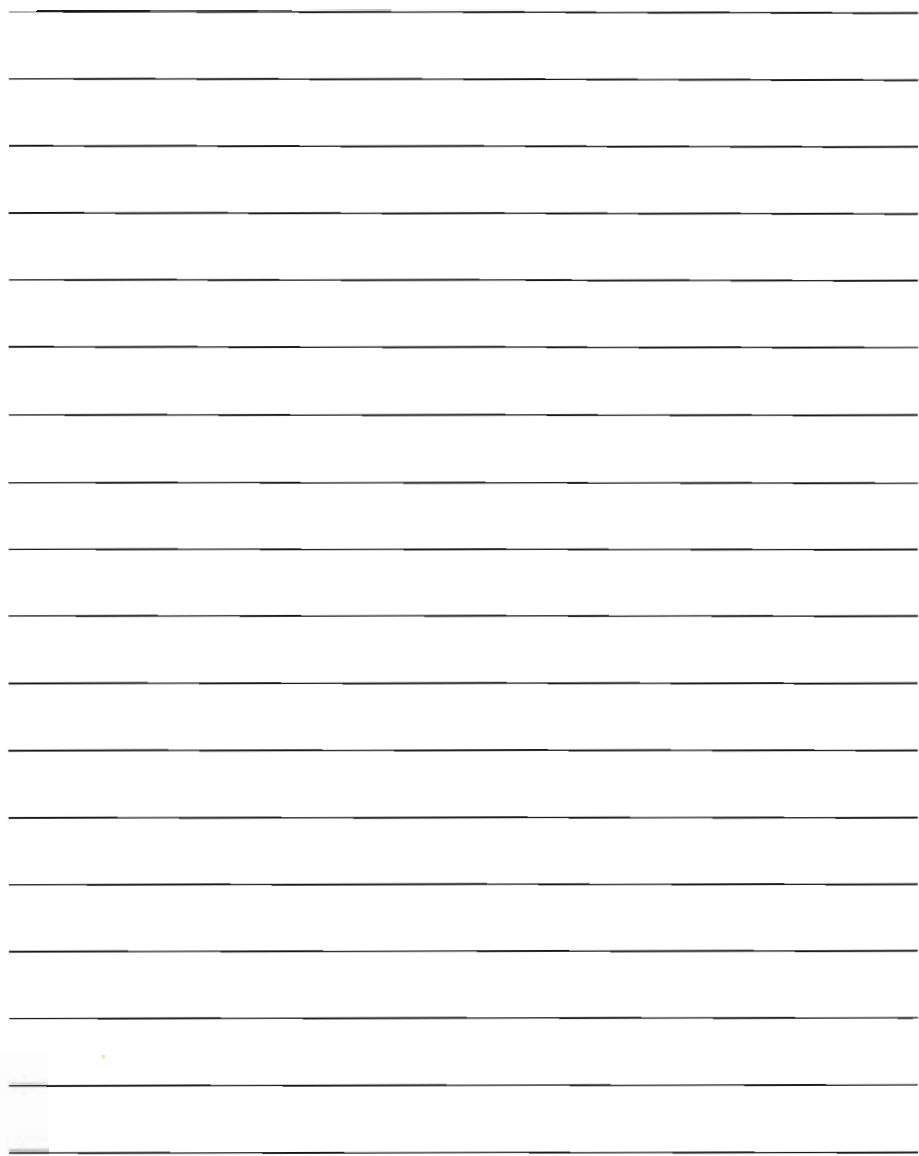
기도노트

① 어떠한 환경과 역경,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에 품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천천히 예수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푸소서.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Blank lined paper for writing.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2년 6월

Copyright© 2012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박만복 문성수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